

국회 예산심사 첫날 예고된 파행

윤리관실, '디가우저'로 사찰 문건 삭제

〈하드디스크 파괴 장비〉

의원 퇴장·정회 등 상임위 곳곳 진통 野 “대포폰 은폐 의도” 與 “과잉수사”

검찰의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거센 반발로 8일 국회 상임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첫날부터 사실상 파행으로 치달았다.

9개 상임위 모두 예정대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지난주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총공세에 나서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지 못했다.

법사위는 당초 71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시작 전 야당의 주장으로 일정을 변경, 이귀남 장관으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받았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승만 독재 치하에서 부산 정치파동과 5·16쿠데타 이후 본회의 대정부질문

중 국회의원 11명에게 무차별하게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전례가 있는가”고 물아붙였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사무실 압수수색을 지휘한 이창세 서울북부지검장과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은 경북 철곡 동향에다 한 분은 대구오성고 13회, 또 다른 한 분은 14회 졸업생”이라며 “갑자기 압수수색을 해서 대포폰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11곳에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진본이어서 하는데 영장은 한 통만 발부했다”며 검찰 압수수색 절차상의 허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검찰이 선관위에 가서 (후원금) 자료를

보면 얼마든지 확인하는데 굳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우리는 과잉수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민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 사태에 대해 성토한 뒤 예산심의 등을 거부하며 퇴장,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 등을 행차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한 한나라당 이인기·신지호·유정현 의원, 민주당 최규식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5명 의원은 검찰을 상대로 일제히 십자포화를 퍼부으면서 1시간여 만에 산회했다.

신 의원은 이번 사태를 ‘국회 유린 행위’라고 규정했으며 유 의원도 “검찰은 의원 대부분을 범죄집단시하는 언론 흘리기에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는 야당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만 들은 채 20분 만에 사실

상 산회했다.

민주당 소속의 김성순 환노위원장 은 의사 발언을 들은 뒤 “검찰 수사가 국회 무시를 넘어 국회 존립 자체를 크게 흔드는 상황에서 위원장으로 더 의사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외교통상통일외도 외교부의 내년도 예산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문제 삼으면서 예산심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지식경제위도 검찰 수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 들은 채 끝났다.

기획재정위는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교육과학기술위는 당초 일정에로 전체회의를 열어 상지대 등 분장사학정상화 추진과 관련된 청문회를 진행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우제창 민주 의원 “검찰, 알고도 묵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자료를 은폐하기 위해 ‘디가우저’(하드디스크 영구파괴 장비)를 사용, 수십만 건의 관련 문건을 삭제했으며 검찰은 이 디가우저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이날 총리실로부터 압수한 디가우저 구입 내역과 관리대장 등을 공개하며 “총리실이 지난 2006년 5월 디가우저를 구입했으나 장악이 장비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2009년부터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계속 민간인을 불법사찰하면서 관련 내용들을 지워 나갔다는 의문을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입수해 공개한 ‘디가우저 사용일지’에 따르면 2009년 7월 8일 23건, 같은 해 8월 5일 10건, 그리고 지난 8월 11일 21건 등의 삭제 기록이 명시돼 있으며 총 삭제용량은 4천894.9기가바이트(GB)다. 자료에는 지난해 8월 5일과 올해 8월 11일 사이의 삭제번호 34~47번에 해당하는 14건의 파일에 대해서는 구체적 삭제 기록이 ‘공란’으로 돼 있다.

우 의원은 “지원관실은 디가우저

를 이용해 한번에 적게는 40GB에서 많게는 160GB 분량을 삭제했으며 이에 비해 삭제된 파일은 최소 수십만 건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지원관실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한 지난 7월 8일 급박하게 디가우저를 사용한 뒤 관리대장 기록을 고의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검찰은 지난 7월 5일 총리실의 자체 조사 결과를 넘겨받았으나 총리실이 이미 관련 파일을 삭제한 8월 18일에서야 디가우저를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디가우저 확보 직전인 8월 11일에도 대규모 삭제 있었다는 것은 검찰이 이를 방기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외면하는 여야 원내대표. 박희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서로 눈을 맞추지도 않은채 다른 곳만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예산 확보 힘 좀 써 주세요”

전남도, 오늘 서울서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9개 핵심 현안사업 국비 확보 당위성 설명

전남도가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전남도는 9일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전남지역 국회의원 12명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박종영 전남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1조 352억원(123건)에 달하는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특히 내년 반드시 확보해야 할 9개 사업(5599억)에 대한 절박함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는 복안이다.

박 지사가 내년 핵심 현안으로 꼽은 9개 사업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432억) ▲목포~광양 고속도로 건설(2785억)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500억)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1000억) ▲압해~화원간 연결도로(100억) ▲하의~신의 연도교 개설(100억)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 조성사업(82억) ▲목포 대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500억) ▲국립 심혈관센터 건립(100억) 등이다.

전주~광양, 목포~광양,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의 경우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수적인 SOC 시설이지만 현재 3개지구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비(4217억)가 너무 많아 자칫 박람회 개최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여수 시내 도로확장 사업비(236억)도 재정형편상 여수시가 부담하지 못하는 만큼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와 대불·삼호산단, 여수산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연계교통망 확충이 절실하다는 입장에서 여수~순천간 국도 건설(99억), 나주~동강국도 23호선(70억), 벌교~주암국도 27호선(620억) 등을 위한 추가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아울러 ‘전남의 탄소 배출권 거래소 유치’, ‘해상풍력 실용화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상임위별로 지역 의원들이 역할을 분담, 예산 확보를 위해 책임지고 나서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청목회 수사 대응’ 점점 못찾아

與 “여러 현안 일괄 타결을” 野 “대통령 사과·검찰총장 사퇴”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청목회 입법 로비 수사의 파장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회담 갖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이뤄진 이날 오전 회동은 당초 예산 심의를 앞두고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격려하기 위해 미리 잡힌 일정이었지만 청목회 사건이 불거지면서 자연스레 검찰 수사로 의제가 모아졌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현안 질의를 비롯해 야당이 합의

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조사, 대통령 사과, 검찰총장 사퇴 등을 요구했다.

반면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여러 현안을 모아서 일괄타결하자”며 반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관련법 중 하나인 유통법의 분리 처리를 야당에 거듭 요구

했으나 유통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은 “모든 문제는 국회에서 수렴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국회의원 11명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던 박 의장은 다시 입장 표명을 해달라는 야당의 요구는 거절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9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6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차원의 대책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어서 합의점이 도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내일부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광주시의회는 9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5일간의 일정으로 제193회 제2차 정례회를 연다.

시의회는 9일 오전 전 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갖고

10~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광주시와 산하기관, 광주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갖는다.

이어 25일부터는 각 상임위별로

“2011년도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한 뒤 내달 6일부터 9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갖는다.

또한, 다음달 13일부터는 각 상임위와 예결위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뒤 23일 본회의를 갖고 올해 회기를 마감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주)와이지-원 광주공장의 성장과 함께 할 사원을 모집합니다.

대모집

완벽한 제품을 추구하는 (주)와이지-원 가족의 끊임없는 도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철삭공구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전 하세요!

■ 채용분야 및 인원			
분	아	인원	연령
기간직 (사무직 경력사원)	생산기술 자재관리공	각 1명	28세 ~ 36세
현장직 (경력직 가능)	품질관리	1명	20세 ~ 50세
	설비(기계) 유지 보수	2명	
	생산직	20명	

■ 기타사항

- 채용기간 : 채용시 까지
- 급 여 : 회사 규정
- 제출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1부
- 접수방법 : 내사 방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4 하남공단 9번 도로)
- 문 의 : 관리과 (062-714-5803)

(주)와이지원
www.yg1.co.kr

조선이공대학

2010년 유망신성학과

프랜차이즈 서비스창업교

우리와 특징 5가지

1. 창업실패의 85%는 1년 이하의 준비기간
2. 2년 간의 실무적인 창업준비로 100% 사업성공
3. 20~30대 장사,사업으로 10억 모은 점장,대표 특강
4. 창업스쿨, 알짜상권분석, 커피바리스타 등 실무중심 수업
5. 월수익 1000만원 이상 업소의 성공요인 분석

졸업후 직원 ▶ 매니저 ▶ 점장 ▶ 창업까지

학과카페: **NAVER 카페 bxbx**

재학중 5가지 자격취득 (100%)

외식산업관리사 서비스경영관리사 커피바리스타 유통경영관리사 고객서비스수료증

일학의 학과실 (062) 230-8410
cafe.naver.com/bxbx

손해사정사

개강 11월 16일(火)

시험예정 : 2011년 4월 24일(1차)

평일반 : 화, 수, 목, 금 PM 7:00~10시
주말반 : 토, 일 PM 2:00~8시

직업상담사

개강 12월 1일

평일반 | 주말반

새롬행정고시학원

전대후문, 영진빌딩 5층 ☎ 268-8111~2

새롬행정고시학원 • 광주점 361-8111
전대점 268-8111

공인중개사

전국최강 새롬교수진 전원 서울에서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위원급 교수진과 50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1월 8일

주간반 야간반

재직자 국비지원 선착순 60명

합격 을원한다면 한 수강료, 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기관을 선택하지 마시고 높은 합격률의 조건을 갖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새롬을 선택하십시오!

www.gjserom.com [http://cafe.daum.net/gj8111]

새롬공인중개사전문학원

광주점 (서구청앞) 361-8111 전대점 (전대후문) 268-8111